

출장보고서

I. 출장 개요

1. 출장건명: DDA 농업협상 참석
2. 출장목적: 전체회의, Room D 및 G10, G33 그룹 회의 참석
3. 출장지역: 스위스 제네바 WTO본부
4. 출장기간: 2008년 11월 25일(화) ~ 11월 29일(토)
5. 출 장 자

부서명(기관명)	직 급	성 명
국제농업연구센터	초청연구원	정대희

※ 동행 출장자 : 농림수산부 대표단 (김종진 국장, 강민철 사무관, 최정미 사무관)

6. 출장일정

일 정	주요 활동내역	비 고
11. 26 (수)	SSM 관련 G-33 그룹회의	관련내용 토의
	G-10 회의	
	민감품목 관련 Walk in the Woods	
11. 27 (목)	SSM 관련 Walk in the Woods	관련내용 토의
	SSM 관련 Green Room 회의 (WTO 라미 총장 주재)	
11. 28 (금)	Informal Open-ended 회의	참석

II. 주요 출장 결과

1) 11월 26일(수)

주요내용 : 11.24,25 회의 내용(TRQ신설/SeP, 열대작물, 기타 시장접근 이슈, SeP/TRQ 신설관련) 대한 de-brief/사실확인 및 평가 등을 논의

- o TRQ 신설 관련, G-20측이 11.25(화) Lamy 총장 주재 회의에서 TRQ 신설 불허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으나, 궁극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payment로는 2% 추가, 허용범위로는 1%로 확정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 SSM 관련, 스위스는 Falconer 의장이 언급한 “SSG 발동대상 품목이 민감품목일 경우 2/3D 적용 필요”는 Walk in the Woods 회의 당일 처음 들어본 내용으로써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표명하며 G-10 국가들의 의견을 문의함.
 - 일본, 한국 등도 스위스와 같이 처음 듣는 내용이며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노르웨이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음.
- 열대작물 관련 139항이 안정화되었으며, 열대작품 규범이 적용되는 범위는 65%로 확정됨.
- Falconer 의장은 Walk in the Woods에서 7월 Lamy package가 정식으로 합의 된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거부한 나라도 없었기 때문에 7월 Lamy 제안이 계속 유효하다는 전제하에서 논의를 진행하였음.
 - 이에 인도네시아는 G-33을 대표하여 SP 품목 수 증가 등 추개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Falconer 의장은 Lamy 타협안 변경을 요구하면 7월 3차 수정안 문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언급함.
 - 우리나라는 7월 Lamy package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나 이를 토대로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고 중국, 필리핀 등이 유사한 입장을 보였음.
 - 태국, 알젠티나 등은 수출 개도국의 이익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인도, 미국, EC 등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음.

2) 11월 27(목)

주요내용 : 오전 - Falconer 의장을 주제로 SSM관련 표제회의
오후 - Lamy 총장 주제로 SSM에 관하여 소그룹 협의

- Walk in the Woods 에서는 UR bound를 초과하는 SSM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 바, G-33 은 [8-12]개월의 발동기간, X month on/off, cross check 부담완화 등 G-33의 입장을 주장함.
 - 우리나라는 cross-check를 이론적으로는 상정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하였음.

- 수출국들은 짧은 발동기간, trigger 계산시 pro rate 적용(기준수입량 계산시 SSM이 발동된 기간의 수입량을 배제하고 계산하는 방안), cross check 의무화 등을 주장함.
 - 특히 G-33이 주장한 X month on/off 의 경우 중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계절성 상품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함.
- Lamy 총장이 주재한 소그룹회의에서는 오전에 진행된 Walk in the Woods 논의를 기초로 하여 duration, cross-check, frequency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duration 관련, G-33은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였으며 수출국은 계절성 상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주장함.
 - cross-check 관련, G-33이 일정 요건 하에서 수출국이 요구하는 경우 cross-check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호응을 얻지 못함. 특히 우리나라는 cross-check를 이론적으로는 납득할 수 있으나 가격자료 확보 등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언급함.
 - frequency 관련, 인도는 연속발동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미국·브라질은 SSM이 매년 발동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음.

3) 11.28(금)

주요내용 : 11.24일 주간에 진행된 여러 Walk in the Woods 회의결과에 대한 de-brief 및 농업협상 추진방향에 대한 Falconer 의장의 입장 표명이 있었음.

- Falconer 의장은 11.24주에 진행된 농업협상 상황에 대해 상세한 수치 및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한 채 대략의 진전 정도를 소개하는 선에서 회원국들에게 설명하였음.
 - 의장은 전반적으로 회원국들의 진지한 참여가 있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으나 여전히 주요 이슈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수준에서 전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평가하였음.

- o Falconer 의장은 11.30(일)에 Green Room 회의가 개최될 예정임을 알리며 이 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협상 진행에 대한 방향이 제시될 경우 후속조치(텍스트 회람)를 진행할 것임을 표명함.
- o 브라질은 G-20를 eovyg여 민감품목 관련 제안서를 설명한바, 일본, G-10 등이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음.
- o 콜롬비아는 “설탕”이 특혜잠식 품목으로 지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는 바, 특혜잠식 그룹에서는 이미 안정화된 이슈를 뒤늦게 문제삼는 것이라고 반발함.

4) 향후 협상 전망

- o 12.1주간 혹은 12.8주간 초에 새로운 텍스트(Rev4.)가 회람될 것으로 전망되며 새로운 텍스트가 회람이 되면 12.15주간에 각료회의가 열릴 수도 있는 분위기임.
 - 그러나 일부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바 각료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불투명함. 만약 각료회의가 열렸으나 협상 타결에 실패한다면 DDA 협상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짐과 함께 협상은 더욱 난항이 될 것으로 전망됨.

5) 출장 소감

- o 우선 초청연구원의 신분으로 국제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으며 특히 WTO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의결과정을 거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
- o 다양한 국가가 모여서 국가의 이권을 두고 협상을 하는 자리이므로 사전에 많은 공부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꼈음. 회의장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자국의 이권과 직결되므로 신중해야하며 그 발언의 근간에는 모든 분석내용과 정보가 밑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실무자들이 자료를 면밀히 살피고 분석해야 함.

- 회의는 과거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논의를 진행시키는 형식이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이 간헐적으로 참석하는 것 보다는 특정인이 계속 공부를 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음.

- 회의에 참여하여 현재 WTO DDA 농업협상이 어떤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어 향후 연구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협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었고 개인적인 연구 능력 향상에 많은 자극이 되었음. 특히 외국어 구사 능력은 정보화 사회에서 고급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므로 앞으로 좋은 연구를 위해서 필히 향상 시켜야 할 능력이라고 생각되며 아울러 외국인들과의 교류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었음.